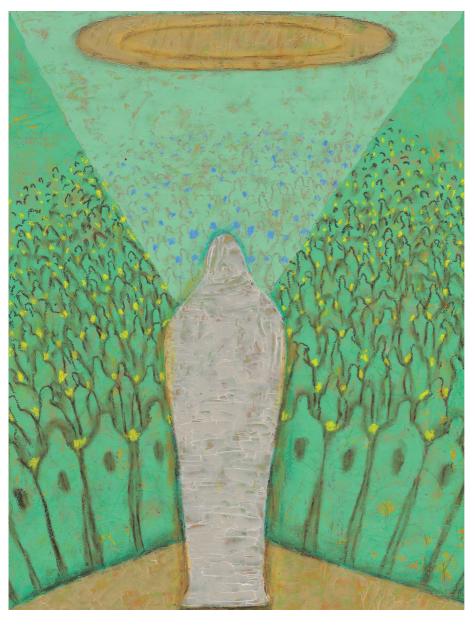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18. 10. 21.(나해) 제2129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겠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이어갈 당신의 사명을 전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고단함에 지쳐 아버지의 기쁜 소식보다는 세상의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각자의 신앙이 소중함을 알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은 신앙을 잠시 뒤로 밀쳐두는 생활을 하게도 만듭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더 찾게 만드는 현 시대는 점점 더 하느님을 전하는 일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전교에 대한 의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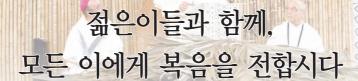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비록 먹고 삶의 고됨과 신앙으로 멀어져 버리게 하는 상황이라도 힘을 내어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할 우리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당신을 증거할 그 고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이번 주간은 기쁨의 미소가 우리 각자의 얼굴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번지는 기쁨의 미소가 가장 좋은 전교이며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욱 마태오 신부 | 4대리구 청소년·청년 담당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더불 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삶의 여정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합 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열 린 자세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원 히 젊음을 지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삶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불현듯 들이닥쳐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삶의 힘을 젊은이들은 그누구보다도 더 잘 느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무를 기쁘게 실천하는 일은 크나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거저 받은 것을 선포하면서(마태 10,8; 사도 3,6 참조),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이 끄는 바로 그 길과 진리를 젊은이 여러분과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드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하실까?"

땅끝까지 신앙을 전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도 세례성사로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 하여 받은 신앙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여 세세대 대에 이어지는 증인들의 위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명의 핵심인 신앙 전수는 사 랑의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쁨과 열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예수 님의 선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 터,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확신 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었습니다(마 태 28,20; 사도 1,8 참조).

오늘날 땅끝은 매우 상대적이며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삶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참된 친교는 나눌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께서 주신 그소명에 헌신하여야 합니다(루카 9,23-25 참조).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 참조)에게 봉사하는 길을 선교 자원봉사 활동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사랑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이번 10월 전교의 달에 젊은이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우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언제나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제자들이 되겠다고다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사현교기의 걸음을 2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개신교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로부터 유래한 이 말은, 세상사와 담쌓은 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거룩한 느낌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자칫 맹목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경고로 많이 인용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을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은 적어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원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1966년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바르트는 성경과 신문 둘 다 읽되, 성경을 통해 신문을 해석하라고 권고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진실을 전해주는 말씀이지요. 이 사랑을 기본으로 두고 그로부터 세상사를 해석하라는 것이 바르트의 권고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성경을 끌어다 붙이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시사를 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의 다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와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시류에 휩쓸려전쟁을 옹호하고 나서는 이율배반의 상황을 목격한 뒤에 얻은 깨달음이었지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 드렸을 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라고투덜거립니다만, 요한 복음사가는 그 속내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폭로합니다.(요한 12,3-6참조)

사실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성도 완전히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반드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미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동원됩니다. 혹자는 이를 프레임이라 부르고, 명분이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이런 프레임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 끌어들이는 일은, 신앙의 외피를 쓰고 자기 이해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언론이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떠도는 상황에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일은 영성의 눈으로 시사 문제를 다룰 내적 준비를 갖추고, 하느님의 사랑,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 고민하며,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이 될 것인지 숙고하는 가운데 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의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Teresa, 1515~1582)맨발의 가르멜회 설립자, 신비가, 최초의 여성 교회학자

지혜의 숲

투사(投射)

"왜 저만 빼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행복합니까?" "그들은 도처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지." 스승이 말했습니다.

"왜 저는 도처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까요?" "자기 안에서 못 보는 것은 자기 밖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지."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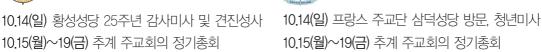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복음환호송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영성체송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0.15(월)~19(금)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10.20(토) 4대리구청 신축 청사 축복식



총대리 동정

10.15(월)~19(금)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10.20(토) 공동체와 구역의 날 미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10.27(토) 14:00~28(일) 15: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결혼한 지 10년 이하의 부부

신청비: 1인 2만원 마감: 10.21(일) ※ 마감염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3114



제6차 대구 약혼자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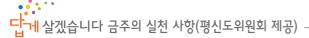
일시: 11.9(금) 19:00~11(일) **장소**: 대구 사수동 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혼배용 혼인강좌 수료증 수여). 2년 미만 신혼부부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010)8692-5695

접수: http://www.daeguee.kr/cee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겠습니다"



	미	사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ι-
오순절평화의마을 10월 후원회미사	10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한=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24일(수) 19:00 신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0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10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10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10월 24일(수) 14:00 성토미스성당

대리구

3대리구 본당사회복지학교

일시: 11.5~26 매주 월 19:00~21:00 총 4회, 월성문화관(월성성당 내)

마감: 10.31(수) 문의: 641-3456

성소 | 피정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문의

대상: 세상 안에서 축성 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문의: (0507)1306-1505

http://돈보스코여자재속회.com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찬양 치유 피정

일시: 10.19(금) 22:00~21(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 문의: (031)262-7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매일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1.2~4 /11.6~8 /11.13~16 1.19~22 /11.30~12.2 / 12.4~6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11.17(토) 11:00~18(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회비: 5만원 /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기타

바오로딸(동성로)서원 개축 후원 모집

만남·위로·기도의 공간으로 교구민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 504-10-316039-6 문의: 바오로딸, 425-5373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5(월)~16(금) 17:00 입학전형: 11.26(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문의: (02)2258-7076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 5차)

일시: 11.14(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문의: 650~4910

주제: 어깨와 무릎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주말** 366차 ME주말: 11,2(금) 19:00~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사 이 시우 신경 http://첵추외과 외과

착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착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기·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발아정령의과에서 발 건강의 책을 되우세요. 장보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SMP 수맥·출침대

조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爹 포장이사서비스

임임이 <mark>딱</mark>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소세덕(히포리토) 신부 1921년 10월 21일
- 신상조(스테파노) 신부 1985년 10월 26일

행사ㅣ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28(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상: 고3·대학·일반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일시: 11.14(수)~15(목)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11.4(일) / 신청비: 6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대천성당 10주년 기념 바자회 초대

일시: 10.27(토) 10:00~21:00 10.28(일) 10:00~18:00

장소: 대천성당 마당 / 문의: 634-9025 바자회 수익금은 성전건립에 사용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0,25(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22(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문의: (010)2501-1543

가톨릭사진가회 제18회 사진전시회

일시: 111(목)~5(월) 장소: 성모당 안익사 앞 문의: (010)3530-1217

교윤 | 모집

제122차 선택 주말

일시: 11.2(금)~4(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교구 청년국. (010)2047-0477

http://www.dcy.co.kr

2019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6(금) 10:30. 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영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24기 뿌에리 깐또레스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u>채용 | 안내</u>

위령의 날 버스운행(군위묘원) 안내

일시: 11.2(금) 9:00. 교구청 내 대건인쇄출판사 앞 주차장 출발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원 준비물: 미사도구, 도시락

예매기간: 10.23(화)~27(토) 정오까지 선착순 마감(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전화예매 불가) 버스 5대분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성당 국밥 판매합니다.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연수 이인호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 **사전서류접수**: 10,29(월)~11,9(금)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2(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1. 교적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 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7~8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첫 사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늘 처음처럼… 최고급 식재료만을 고집합니다.



예약 053)767-6700

앞이 암을 이긴다!

청도 윤성요양병원

암 수술 후 재활·통증 치료 전문

면역치료 14년 054)373-7400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010_4505_6355**

33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253-7476

35년 전통 🧀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대문행역 <mark>밤에네지</mark>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TEL 743-4488 FAX 744-1594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 • 어깨 • 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